

전북 아·태 마스터스 참가자 1만1325명

역대 최고 규모 대회 '예감'

전북도, 어려운 여건 속 참가자 모집에 역량 집중
5월 개최로 스포츠·관광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
조직위, 마라톤 종목 등록기간 연장 신청자 추가 모집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지난 12일까지 대회 선수 참가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참가자가 65개국 1만1,3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당초 목표인 1만 명을 초과했고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개최됐던 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MGA 공식화신) 중 역대 최고 규모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2019년 대회 유치 이후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개최 연기와 선수단 조성 등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분위기가 속 빠르던 일상 회복과 대회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올 봄 국내 전역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선수단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스터스대회는 국가가 종목별로 선수를 선발하고 비용을 부담해 참가시키는 엘리트대회와는 달리, 개인이 스스로 참가 신청을 결정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대회로 조직위가 직접 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체육 동호회 활동 위축, 항공료 인상,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참가자 모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전북체육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순회 방문하고 시·도별 참가인원을 배정하는 쿼터제를 실시하는 한편, 홈페이지와 대표 SNS를 통해 세계 각국 스포츠 연맹과 종목별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등 온라인 홍보에 주력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세계한인체육회

장 18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도자매우협력도시와 참가자 모집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현지 모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와 조직위, 전북체육회, 유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집중했다.
특히 한국체육기자연맹, 아시아체육기자연맹 등 국내외 스포츠 전문 언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시아 30개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대회를 홍보하는 등 국내외 언론 홍보 활동에 집중했다.
작년까지 더디던 참가자 모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대회가 5월에 개최돼 스포츠와 관광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과 비록 고물가·저수익의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코로나19 완화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입국규제가 완화되는 등 주변 상황 호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직위는 참가자 모집을 공식 종료하는 대신 대진표가 필요없고 경기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마라톤 종목은 등록기간을 연장에 신청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모든 역량을 손님맞이에 집중해 참가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편한 점을 미리미리 찾아

서 편셋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수송, 숙박 및 음식점 등 맞춤형 편의제공과 대회 성공의 열쇠인 자원봉사자 교육과 배치, 충분한 인력 확보와 경기장 정비, 대회 불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현안업무에 집중해 대회 성공개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조직위, 전북체육회, 유관기관(소방, 경찰청, 교육청) 간 8개 분야 51개 과제에 대해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대회 분산 개최에 따라 14개 시군과도 인력지원, 경기장, 물자 등 13개 과제에 대해 상시소통체계를 유지해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조직위원장이 김관영 도지사는 "2023 전북 아태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엘리트대회와는 달리 경기 그 자체를 즐기는 생활 체육인들의 축제"라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전라북도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참가자에게 알리고 더불어 대한민국 생활체육 대표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전북현대 문선민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문선민, K리그1 3R MVP

(전북현대)

광주FC와 경기서 멀티골로 팀 2-0 승리 이끌어

프로축구 전북 현대 공격수 문선민이 올 시즌 K리그 3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광주FC의 경기에서 멀티골로 전북의 2-0 승리를 이끈 문선민이 하나원큐 K리그1 2023 3라운드 MVP에 뽑혔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전에 선발로 나선 문선민은 후반 28분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오른발 감아차기슈팅으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어 2분 뒤에는 골키퍼에게 맞고 흘러나온 공을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추가골을 넣었다.
문선민의 활약에 전북은 개막 3

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주간 베스트11 공격수에는 제르소(인천), 라스(수원FC), 주민규(울산)가 뽑혔다.
미드필더에는 문선민과 함께 이청용(울산), 맹성웅(전북), 이광혁(수원FC)이 자리했다. 수비수는 델브리지(인천), 잭슨(수원FC), 정태욱(전북)이 올랐다. 골키퍼는 노동건(수원FC)이다.
3라운드 베스트매치는 1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수원 삼성의 경기(수원FC 2-1 승리)다.
수원 derby에서 시즌 첫 승을 챙긴 수원FC는 3라운드 베스트매치에도 선정됐다. /뉴스

태권도 품새·격파 대회, 전주서

전주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5월 5~7일 개최
27일부터 대한태권도협회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제1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품새·격파)대회가 5월 5~7일 3일간 열린다.
접수는 3월 27일~4월 5일까지 대한태권도협회 사이트(https://koreatakwondo.or.kr/)에서 가능하다.
14일 전주대에 따르면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는 4,000여 명이 전주시를 방문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2023년 1월 대한태권도협회(KTA)에서 인준 받아 전국 대학 입시 혜택과 국가대표 선발권을 부여한다.
특히, 태권도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격파 부문'의 대회까지 전주에서 열리게 돼 연간 약 15억원의 경제 효과 기대된다.
전주대학교는 "2022년 총장배 태권도 대회"를 비승인대회로 개최하는 등 전북도 및 전주시 등과 협력해 1

년 만에 전국대회 승격이라는 성과를 일궜다.
한편, 전주대 태권도학과는 2019년 세계태권도 한마당 종합우승을 시작으로 전국 격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격파 종목을 확장한 '태권도공연'에서 한 소방관의 죽음을 각색한 'Fire-Fighters'는 관광콘텐츠 태권도공연 공모전에서 1위를 하는 등 태권도를 문화산업으로 선도하는 학교팀이다.
이숙경 학과장은 "태권도 슈퍼스타를 키우기 위해 학교를 내 집 삼아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만들어지고 도전할 수 있는 태권도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태권도와 연계할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제1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품새·격파)대회'가 5월 5~7일 3일간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주대학교 총장배 태권도 대회의 모습이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남원시청 복싱부 정재민, 국가대표 발탁

남원시청 소속 복싱부 정재민 선수(35)가 지난 11부터 2일간 김해시 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도 복싱 국가대표선발전 92kg급에서 한국체대 강병진에 관점승으로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발탁되었다.
정재민 선수는 지난해 남원시청에 영입돼 올해 선수권대회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량으로 남원시의 위상을 높여왔다.
국가대표선발전은 지난해 12월 1차, 올해 2월 2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선발전이 치러지며, 남원시는 5명의 선수 중 2명이 최종선발전에 출전했다. 지난해에 국가대표에 발탁됐던 박남형 선수는 손목 부상을 당해 최종선발전



에서 아쉽게 3위에 머물렀다.
정재민 선수는 올 9월에 열리는 한저우 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한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아시안게임에 앞서 5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다. /남원=김기투 기자

http://council.jinan.go.kr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제9대 진안군의회 |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